

현대 혁명에 도전

—혁명적 공산주의 운동의 50년—

제 6 장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공산주의

1. 자본주의에 미래는 없다
2. 공산주의 건설의 조건은 성숙되었다
3. 혁명의 핵심 문제-노동계급에 의한 국가 권력의 탈취
4.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준비 하는 것

제 6 장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공산주의

1. 자본주의에 미래는 없다

세계 대공황과 신자본주의의 전면적 붕괴는, 러시아 혁명 후에도 연명을 거듭해 온 자본주의·제국주의 역사가 마침내 종말의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회의 1%에도 못 미치는 대(大)부르주아지(유산계급)는 99%의 노동자 계급 인민을 끝없이 희생시켜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발악으로 점점 절망적 흉포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 아래에 이제, 대량의 노동자가 모든 권리가 박탈된 채 버려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극단적인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직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이 실로 백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의 투쟁으로 따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를 폭력적으로 박탈하고, 임금을 한꺼번에 2분의 1, 3분의 1로 깎아버리는 엄청난 공격이다. 노동자를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자존심을 빼앗아, 그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줄 때까지 혹사시키고 버리는 공격이다. 자본의 「임금 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히 강요하여, 청년에게서 미래를, 삶 자체를 빼앗아 죽음으로 내모는 공격인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가장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관철시킨 자본이야말로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 자본은 철저히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 살핀다는, 무서운 세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점점 더 사회 전체로 확대되려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함께 독점 자본에 의한 온갖 형태의 대중 수탈이 극한으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농민·어민, 도시의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이 그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있다. 자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지역 전체를 통째로 '공동화(空洞化)'하여 사람들로 부터 토지를 빼앗고, 밀어버려 쫓아내는 공격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과 빈곤이 만연하고, 직장도 집도 가족도 없고 매일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 한복판에 넘쳐나고 있다. 교육이나 의료, 복지 등 사회를 성립시키고 있는 이른바 공공 부문 모두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 가난한 사람은 병들어도 병원조차 갈 수 없다.

▼ 신자본주의를 타도하자

한마디로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으며, 최소한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보다 돈벌이」라

는 부르주아의 범죄적 논리가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초래한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핵과 원전 폐기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전 재가동에 돌진하고 있는 일제의 모습이 그 전형이다. 이제 사회 전체가 바닥의 바닥까지 썩어 문드러져 무너져 내려 가려하고 있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노동현장에서의 자본의 독점적 지배 위에 성립함과 동시에,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금융자본 · 거대 독점 자본에 의한 전 세계에 걸친 철저한 착취와 수탈은, 부르주아 국가 권력의 막강한 힘, 노동자 인민에 대한 국가 폭력의 발동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되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의 굴복과 노동조합의 변질,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노동운동의 협조다.

자본가 계급은 또한, 대공황 아래 축소되어가는 세계 시장 쟁탈을 둘러싼 거대한 독점체 간, 세계의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면서, 지구상의 모든 토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금융 투기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는 이제, 전쟁조차도 시장 · 자원의 약탈과 노동자 인민 · 다른 민족 학살의 침략 전쟁, 강도 전쟁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전쟁 비즈니스」가 되어 있다. 「죽음의 상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핵 및 원자력 발전은, 제국주의 · 신자유주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세계 지배의 무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비록 전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이 무서운 탐욕과 그를 향한 폭주를 가리켜, 「내가 죽은 다음에 홍수야 와라!」가 전체 부르주아지 계급의 표어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바로 그 자체이다. 거기에 「이성」 같은 것은 더 이상 일말의 여지도 없다.

이제 더 이상 한 순간도 이 현실을 내버려둘 수 없다. 신자유주의 공격을 쳐부수고, 부르주아지와 그 국가 권력을 바닥부터 타도하기 위해, 즉시 총력을 다하여 쫓아내자!

▼ 진정한 인간적 공동 사회 건설로

우리가 지향하는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노동자계급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타도하고, 자본에 의한 착취를 완전히 끝내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를 근본적 · 전면적으로 뒤집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진정으로 인간적인 공동 사회(=

진짜 공산주의 사회)를 전 세계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쟁과 살육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길과,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낳은 가장 흉악한 산물인 핵과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고 「후쿠시마」의 현실을 진정으로 돌파해 나가는 길이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변혁의 사업이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도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 인민이 진심으로 결의하고, 단결하여 총궐기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은 1%이며, 노동자 인민은 99%이기 때문이다. 1%가 마음대로 활개 칠 수 있었던 것은, 99%의 사람들, 특히 압도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마치 영원한 사회이며, 노동자들은 투쟁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을 배신해 온 스탈린주의와, 구소련·동유럽의 붕괴로 시작하는 그 최종적인 대(大) 파산이 「혁명을 해도 노동자는 해방되지 않는다.」라는 무력감과 절망을 노동자계급에 퍼뜨려온 데 있다. 그것과 함께, 자본에 매수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노동조합을 자본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자본과 결탁한 노동자 지배의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노동자의 분노의 쉼기를 장기간 봉쇄해온 데 있다. 반대로, 이 벽을 쳐부수고 노동자계급의 마음속의 분노를 전면적으로 풀어내어 투쟁한다면,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은 단연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1871년의 파리 코뮌,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실제로 부르주아 독재 국가를 타도하고 자신의 정치권력을 세울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 혁명은, 국제 제국주의의 일각을 현실에서 타도하여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돌파구를 열었다.

하지만, 세계 혁명의 달성을 포기하고 러시아 혁명을 변질시킨 스탈린주의는, 그 배신으로 제국주의의 연명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다.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큰 핵심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해체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함께 제 2차 대전 후의 세계를 핵의 힘으로 지배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암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스탈린주의의 범죄성이야말로,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어용노동조합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자본이 여기까지 마음대로 패악을 부리며 판을 치게 한 원흉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일체의 벽을 돌파하여,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의 사상인 마르크스주의를 자신의 손으로 탈환하여, 계급적으로 하나로 단결하여,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실현을 위해 총궐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어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 계급·모든 계층의 인민들이, 노동자계급과 똘똘 뭉쳐 자본 지배의 전 세계적 전복, 인간 사회의 탈환을 향해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오늘날 시작되고 있는 수십만·수백만의 분노의 켈기, 그 뒤에 전 세계 노동자 인민의 사회 변혁에 대한 열정을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 바꾸어, 부르주아 국가 권력을 실제로 타도할 수 있는 힘으로 성장시켜 나가자!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과 노동자계급의 진짜 당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그 출발점이다. 총력으로 투쟁하여, 승리를 향해 돌진하자!

2 공산주의 건설의 조건은 성숙되었다

(1) 자본주의 사회와 그의 전복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과 진정한 인간적 공동 사회 =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제반 조건은 이미 압도적으로 성숙되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이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과 힘에 대한 자각과 긍지를 깨닫고, 자본의 지배를 전복하는 투쟁에 정면으로 총궐기해 나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 자신의 사업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노동자계급 안에 있다. 노동자야말로 그 노동에 의해 생산과 사회를 성립시키고 있는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다. 자본은 노동자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지만, 노동자는 자본이 없어도 그 단결의 힘에 의해 훌륭하게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그 단결을 통해 그 동안 빼앗겨 온 인간적인 공동성을 탈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능력을 투쟁 속에서 스스로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계급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고, 노동이 노동하는 인간 자신의 삶의 기쁨이 아닌, 자본의 가치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보다 돈벌이」로 상징되는 이 사회의 본말이 전도된 비인간적인 모습의 일체는, 이 노동력상품화를 기초로 성립되었다. 이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자본의 폐지에 의하여 전면적 · 근본적으로 바꾸어, 인간 노동과 인간 사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차별과 장애인 차별 · 여성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이나, 민족에 따른 분단 · 억압과 배타주의, 지방 농촌의 소외, 재해 피해지역들에 대한 기만정책 등도 그 모두가 <임금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위에 성립되고 있으며, 이 토대를 뒤집는 것으로서 비로소 진정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이하 '혁공동'이라 함)의 강령 초안은, 그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 이 해방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면적인 전복에 의해 달성된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해방은, 동시에 계급 사회 아래에서의 모든 억압 · 차별에서의 인간의 해방, 즉 보편적인 인간 해방에 있다」(P316)

혁공동이 이 강령 초안 제 1항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의 「공산당 선언」에서 제기한 내용 그 자체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착취 위에 성립한 사회인 점, 그리고 자본주의가 낳은 근대의 노동자계급 = 프롤레타리아트 이야말로 자본과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자본이 지배하는 이 사회의 기본적이고, 전면적인 전복 없이는 자기를 해방할 수 없는 계급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가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으로 분열된 이래의 인류의 역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그의 전복은 계급 사회 자체의 폐지로 이어질 것을 명확히 했다. 게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위한 모든 조건은,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 그 자체 내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자본론」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해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혔다.

즉,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 그 힘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단결된 투쟁 속에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바로, 자신의 해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해방하고, 세상을 변혁해 가는 혁명의 주체로서 세계사에 등장한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이 자기해방을 통해서 전 인류의 해방을 달성하려고 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현실 운동이다. 공산주의는, 이 노동자계급의 현실

의 투쟁과는 다른 곳에서, 관념적인 「이상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 유토피아를 억지로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무엇보다도 수천만 · 수억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의 자기 해방적인 쫓기이며, 그 들끓는 투쟁의 도가니 속에서야말로 붕괴되어가는 낡은 부르주아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제 요소가 전면적으로 풀려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혁명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핵심과 노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1867년 제 1권 발행)과 파리 코뮌을 총괄하여 나온 「고타 강령 비판」(1875년), 그것을 계승한 레닌의 「국가와 혁명」(1917년)과 러시아 혁명의 경험 그 자체 속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 인간 노동의 본질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해명하기 전에 원래 인간의 노동이란 무엇인가, 인간 사회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자.

인간은 자연에 작용, 자연을 가공하여 생산물을 만드는 것, 즉 노동하는 것으로 날마다의 생활을 재생산하면서 살고 있다. 이 노동에 의한 물질적 생활의 생산 그 자체가 인간의 모든 삶의 토대이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동물이 먹이를 취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동물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직접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본능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직접적인 육체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미리 구상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한다. 즉, 인간의 노동은 인간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과의 협동으로서, 즉 사회적인 활동으로서 행해진다. 어느 한 개인의 노동이 표면적으로는 그 혼자만의 고립된 작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그는 그 노동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수많은 사람이 벌이고 있는 노동과 결합되어 일체화 된 활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 노동의 이러한 특수성이야말로 인간이 자기 자신들의 사회(「인류」사회 = 류적사회 : 類的社會)를 형성하는 근원이다.

또한, 인간의 노동이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 자신의 현재의 삶(생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을 낳는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전 자연을 변혁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변혁하고, 역사를 만들어,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노동은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

▼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은, 노동하는 인간 자신의 삶과 인간 사회 전체의 재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거기에서는, 노동의 생산물은 노동자=생산자의 것이 아니라 모두 자본가 것이며, 새로운 자본으로 전환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은, 자본이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통째로 착취함으로써 점점 더 비대해지는 과정이며, 자본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착취 대상일 뿐이다. 노동자는 그 노동에 의해 생산과 사회 전체를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살게끔 된, 180도 전도된 관계에 놓여있다.

이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그 자체에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주요 생산 수단이 자본가 계급의 사유 재산이 되고, 노동자계급은 일체의 생산 수단·생활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노예제 사회도, 봉건 사회도,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 계급이 노동하는 계급(피착취 계급)을 지배하여 그들의 잉여 노동을 착취하는 관계를 기초로 하였다. 자본제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관계로 실현되고 있다. 이 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노동 시장에서 서로 「제품 소유자」이며 「자유·평등」하게 상대한다.” 라는 기만적인 형식 아래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이 팔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무한의 가치 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의 자가증식성향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회보다 가혹한 것이 되었다. 그곳에는 노동자가 일하면 일할수록, 그 결과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본의 힘을 더 한층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어야 할 노동은, 자본을 비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숨마저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강제 노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기술 혁신 등

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정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 대량의 노동자를 「잉여 인력」으로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모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대로, 노동자 인구의 일부가 끊임없이 실업·반실업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자본의 축적을 추진하는 조건으로까지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현실, 혹은 방사능 피폭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은 그 극한적인 모습인 동시에, 실은 자본주의 하에서 모든 노동자가 처한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과 임금노동의 관계를 「임금 노예」라고,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 노동의 현실을 「소외된 노동」이라고 칭하며 분노를 담아 고발하고 있다. 「소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지만,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와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힘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이 자본으로 변하여 그 자신에게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본 하에서 노동은, 「먹는 것과 자는 것」이라는 그 동물적 생존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된 고역일 뿐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를 기계 부품이나 자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으로 바꾸는 것이며, 하루의 노동을 마친 다음의 집이나 선물집에서야말로 그는, 자신이 아직은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래의 모습에서 멀리 동떨어진, 자신의 종족적 본질로부터의 소외인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소외, 즉 공동성의 파괴로 가장 예리하게 나타난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는, 노동자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서로 대립·경쟁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그 하루하루의 노동에 의해, 이러한 계급 관계 전체를 자신의 손으로 재생산한다. 그가 필사적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그를 묶고 있는 「임금 노예」의 멍에는 점점 강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에 대한 영원한 종속을 의미하고 있다.

▼ 임금 제도의 폐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사회관계)의 전복에 있다. 즉,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자본이 착취하는 관계의 폐지, 그 기초가 되고 있는 노동력의 상품화의 폐지, 다시 말해 임금 제도의 폐지에 있다. 그리고 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폐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해서 이루어진 사회 = 계급 사회 자체의 최종적인 폐지의 길을 연다. 그로 인해, 계급 사회 하에서 만들어진 모든

차별과 억압, 분단과 대립을 근절 · 일소하고, 모든 인간의 해방을 실현해가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기한 본래의 공산주의다.

이에 대해, 과거 마르크스 이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로부터 시작하여, 현대 사회민주주의자와 스탈린주의자에 이르는 많은 조류들이 한결같이 제기해온 것은, 생산 방식이 아니라 분배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노동의 생산물이 사회 전체에 「평등 · 공정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것처럼 생각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이러한 「공정한 분배」가 현재 자본주의 제도를 깨지 않고도 그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본 공산당 등에 의해 그럴듯하게 펼쳐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분배 관계는 생산 관계의 한 측면이며, 생산 관계에서 분리된 분배 형태만의 개선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생산 관계의 근본적 전복에 동반하여 기존의 분배 형태도 자연히 소멸되고, 새로운 형태로 치환되어 가게 되는 것이다.

▼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전복하는 힘은, 실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자본의 착취와 날마다 투쟁하여 살아 남기위한 필수불가결의 것으로서,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추구하여 만들어내는 단결의 형성 그 자체가, 계급 사회 하에서 빼앗겨 왔던 인간적 공동성을 전 사회적으로 탈환해 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근거는, 노동력이 상품화되었어도 노동자 자신은 살아 있는 인간이며, 자본은 노동자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 있다.

노동자의 노동이 인간의 노동인 한, 그 노동이 사실은 아무리 소외된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기초한 행위로서 실현된다. 자본이 노동자를 철저히 「물건」 취급하고,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노동자는 역시 인간이며, 의지도 감정도 갖지 않는 단순한 기계 = 로봇이 될 수는 없다. 자본이 아무리 본말이 전도된 사회를 극한까지 밀어 붙인다 하여도, 인간이 인간임을 백퍼센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가혹하게 짓밟힌다고 해도, 아니, 그럴수록 노동자계급 속에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근원적인 외침과 반란이 반드시 일어난다.

3·11 대지진의 재해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중요하다. 재해 지역에서 사실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극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노동자계급 인민 사이에서 저절로 되살아났다.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를 철저히 분단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유대를 파괴한다 하여도, 노동자계급이 살기 위해서 단결하여 일어선다면 그 순간, 빼앗겼던 인간적 공동성이 이 단결의 내부에서 불사조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 단결이 자본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계급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무덤 파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던 것이다. 또한 「오늘날 부르주아지에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진정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라고도 단언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본에 의해 가혹한 취급을 받고 있다든가, 사회의 최하층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이야말로 생산의 주체이며, 이 사회를 현실에서 토대에서 지탱하고, 성립시키고 있는 사회의 진정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르크스의 말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인간 상실」을 강요당해, 자본이 지배하는 이 사회와 전면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신과 전 사회를 인간으로서 「완전히 재획득」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계급 사회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모습으로서, 대공업과 함께 그러한 결정적인 계급을, 근대의 노동자계급 = 프롤레타리아트로서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자본의 지배에 대한 다른 계급의 반란과는 달리, 단순한 반란에 그치지 않고, 그 투쟁 안에서 새로운 사회의 싹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간다.

농민 등 다른 모든 계급 역시, 제국주의 권력의 억압과 지배에 대항하여 철저하게 투쟁하고, 농민 전쟁의 역사에서 보듯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계급보다 더 전투적이고 격렬한 투쟁을 해낸다. 그러나 그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근본적 전복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궤기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현재의 지배 계급에 대한 「반란」의 차원을 넘어 전진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승리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과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농민 자신의 근본적인 해방의 문도 열린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말하면, 농민을 비롯한 다른 근로 모든 계급 · 모든 계층의 인민 모두를 아울러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조직하여, 함께 거대한 사회변혁을 해낸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급인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있어서 쇄사슬 이외에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해야 할 것은 전 세계이다」라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말은, 노동자계급의 이 계급적 본질을 훌륭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늘날, 정규 · 비정규의 분단과 부르주아 ·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 예를 들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자본과 어용 조합에게 깊숙이 포섭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노동자인 한, 「계급」으로서의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노동 귀족의 지배가 깨어져,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계급으로서 하나로 단결하는 것을 배우고 투쟁에 일어서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바꾸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대공황과 3.11 정세는, 바야흐로 모든 노동자들이 속속 쫓겨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2)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혁명적 전환은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은, 노동자계급이 그 단결의 힘으로 부르주아 정치권력을 완전히 타도하고 지금까지의 국가기구를 철저히 분쇄 · 해체한 다음, 자신들의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부터 시작한다. 승리한 노동자계급은 그 국가를 통해 사회적 생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해체와 재편성에 착수하는데, 이때부터가 공산주의 사회의 시작이다. 즉,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를 키우는데 즉시 착수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 자본의 폐지야말로 핵심

그 핵심은 자본의 폐지에 있다.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본이란, 많은 노동자의 노동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사회적 힘이다. 자본이 계급의 것이 되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힘으로 전환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로부터 분리되어 자본가 계급의 사유 재산으로 되는 까닭에,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인 힘이 사회 전체의 것이 되지 않고 자본가 계급의 독점물이 되어, 「자본의 힘」으로 바뀌어 노동자 인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전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부르주아적 사유 재산, 즉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사유 재산)는, 계급 대립 즉 타인의 착취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생산과 취득이 행해지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완성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유 재산(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서 말하는 「부르주아적 소유」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생산 수단의 사유를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각 사람이 살기 위해 자신의 노동에 의해 획득한 작은 개인 소유물을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지배하는 힘이 생겨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부르주아적 사유 재산의 폐지, 즉 생산 수단을 자본가 계급의 손에서 박탈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생산 수단이 더 이상 자본으로 전환하여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폐지되면, 당연히 임금 노동도 폐지된다. 자본의 폐지와 임금 노동의 폐지는 실제로 같은 것이다. 노동자는 더 이상 하루하루의 생활의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넘길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다. 대신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한결같이 노동자=생산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서로 나누고 일하고, 생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비하는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실업이나 과로사라는 자본주의 특유의 노동자계급의 고통도 당연히 사라지고,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사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착취하는 계급이 없다면, 오로지 노동에 종사하는 계급 즉 「노동자계급」이라는 「계급」도 없어진다. 사회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로 갈라져 왔던 계급 사회의 역사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을 길이 여기에 드디어 열린다.

▼ 생산력과 노동의 해방

그리고 이 자본의 폐지는, 자본주의 하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성숙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조건을 단번에 전면적으로 해방하게 된다.

하나, 자본주의가 역사상 처음 낳은 거대한 생산력의 모든 것이 인간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공유 재산으로 통째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생산

력의 대 발전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된, 자본주의의 근대적 대 공업 하에 조직된 대규모적인 「결합된 노동」이 자본의 독재 지배 아래서의 강요된 결합에서, 노동자 자신의 자주적이며 의식적인 결합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 진정으로 풍부하고 고도의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객체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모두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생산력이란 노동자의 노동이 만들어 낸 것이며, 사회적으로 결합한 인간의 힘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는 대규모로 집적된 생산 수단 하에서 극히 많은 노동자의 「결합된 노동」을 조직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규모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의 거대한 가치 증식과는 극과 극으로, 노동자계급을 더욱 빈곤과 고통 속으로 내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스스로의 가치 증식을 유일한 목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의 무한한 자기 증식은, 본질적으로 「이성」 따위를 전혀 갖지 않는다. 그 결과는,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자연과 인간에 대항하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나타나는 지점까지 치닫는 것이다.

자본의 폐지는, 인간의 사회적 노동이 만들어 낸 생산력을 인간 사회의 손에 되돌리는 것으로서, 이러한 모순의 일체에 종지부를 찍는다. 자본의 폐지가 전 세계적 규모로 달성된다면, 기아도 빈곤도 없는 세상을 완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의 사회처럼 「생존 경쟁」을 위하여 사람끼리 싸울 필요 따위는 전혀 없다.

또한, 대 공업의 기초로 조직된 수천 명의 노동자의 결합 노동은, 그 개별 노동력의 산술적 합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을 낳는다. 1 천명의 결합 노동은 1 천명 분의 노동 생산물의 합계가 아니라, 2 천명 분, 3 천명 분, 그 이상 노동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론」에서, 「타인과의 계획적인 협동 속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개체적 한계를 벗어나 자신의 종족 능력을 발휘한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인간 노동의 본질에서 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원래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노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인간 노동이 가지는 본질적인 힘이 진정으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자본의 폐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의 결합 노동은 처음부터 자본에 의한 강요에 의해 실현되고 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노동자는 공동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옆의 노동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같은 자본과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사회적 결합은, 거기에서는 노동자 자신의 의식적인 결합이 아닌, 전혀 반대로 전체 노동자가 자본가와 그 하사관 = 노동 감독, 직제의 절대적인 지휘 · 명령 및 감시 하에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형태로 조직된다. 그리고 이 결합 노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으로만 나타나며, 생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실의 노동자는 반대로 오로지 자신의 내재적인 생명력을 자본에게 빨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자본의 폐지는, 이 생산력을 진정으로 사회적 생산력으로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을 자본에 의한 강제에서 해방시킨다. 강제된 결합 대신 엄청난 노동자의 자주적이며 의식적인 결합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 전환에 의해서 「결합된 노동」은 그 본래의 인간적인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함과 동시에, 노동자=생산자의 공동체적 단결의 토대 그 자체로 바뀐다. 이 단결 아래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더 이상 자본에 그 생명을 빨리는 노동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전면적으로 개화 · 발전시켜, 개인의 전면적인 발달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한층 풍부한 고도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야말로 인간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원전 사고가 초래한 심각한 방사능 오염과 대결하고, 극복하여, 핵과 원전을 진정으로 이 땅에서 없애 나가는 힘든 투쟁도 이 속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미래는 압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 「고타 강령 비판」에서의 제기

자본의 폐지에 첫 걸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에 의한 혁명적 권력 행사 하에서 자본가 계급의 손에서 그들이 사물화해 온 사회적 생산 수단 전부를 실력으로 몰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즉시 노동자계급은 몰수한 생산 수단의 노동자 국가에 의한 국유화를 매개로 하여, 그것을 사회 전체의 공유 재산으로 바꾸는 투쟁에 들어간다. 즉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의 성장을 향해 곧바로 돌진 해가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제 1권의 간행 (1867 년)과 1871 년의 파리 코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고타 강령 비판」에서 이 「신생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의 기초 위에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반대로 단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점에서, 즉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태어난 모태인 구 사회의 잔재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각각의 생산자는, 그가 사회에게 준 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을 — 공제가 행해진 후에 — 돌려받는다. 각각의 생산자가 사회에 준 것은 그의 개인 노동량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노동일 (사회적 총 노동 시간)은 개인적 노동 시간의 총계가 된다. 각각의 생산자의 개인 노동 시간은, 사회적 총 노동 시간 중 그가 기여한 부분, 즉 사회적 총 노동 시간 중 그의 기여부분이다. 각각의 생산자는 — 공동의 원본(펀드)에서 그 노동자 분을 뺀 — 이리이러한 노동의 양을 급부했다는 증명서를 사회에서 받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소비 수단의 사회적 보유분에서 정확히 같은 양의 노동이 소모된 소비 수단을 인출한다. 각각의 생산자는, 자기가 있는 형태로 사회에 기여한 것과 같은 노동량을 다른 형태로 돌려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총생산물 중에서, 생산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을 공제하고 「공동의 원본」(사회 전체의 공동의 필요에 해당 되는 부분)을 공제한 후의, 잔여분이 개인 소비 수단의 분배에 돌려진다. 그 기준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제기 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얻은 임금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물자(소비 수단)를 상품의 형태로 구입하여 되돌려 받는다. 자본주의를 전복한 후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는 그가 사회에 기여한 개인 노동량에 따라 소비수단을, 사회적 총 노동 중 자기의 지분에 따라 공동 창고에서 꺼낸다. 거기에는 「노동에 따른 분배」 즉 「어떤 형태의 노동이 그것과 같은 양의 다른 형태의 노동으로 교환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는, 현재 상품 경제에 있어서의 「등량 교환」의 원칙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을 대신 하여, 사회 전 구성원에 의해 생산 수단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의 폐지와 함께 상품 경제와 그것을 관철시키는 가치 법칙 자체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상품 경제가 생산 과정을 포함한 전 사회를 지배하여 성립한 사회이지만, 그 자본주의로부터 나온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막 태어난 것」 이기는 하지만,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는 관계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생산자가 사적 생산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생산물의 생산을 위해 지출된 노동이 그 생산물의 가치로 나타나는 일도 없고, 생산 가치대로 교환하는 등의 관계 자체가 이미 소멸되었다. 사회적 총 노동의 분배 = 사회적 생산 전체의 조직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상품 경제 즉 제 상품의 사적 교환의 끝없는 연쇄의 내부에 관철되는 가치 법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결합한 노동자 = 생산자의 집단적의지에 의해 모든 개인의 노동이 직접 사회적 총 노동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매우 간단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거기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자가 되는 이상, 착취 계급은 이미 소멸되었으며, 계급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그 권력을 발동하여 위에서 사회를 통제할 필요는 더 이상 없으며, 계급 지배기관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 「자유의 나라」로의 도약

마르크스는 또한, 이것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이며, 자신이 거기에서 나온 모태인 구 사회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는, 노동의 종류와 질과는 관계없이, 노동력의 지출로서의 노동의 양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량의 크기는 각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릇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양한 각 개인의 능력으로 풍족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양한 개인들에게 어떤 균일한 척도를 적용하여, 그 측면에서만 인간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불평등을 전제로, 하나의 척도로 인간을 측정하는 부르주아적인 것이며, 구 사회 잔존물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고도의 단계에서는, 즉 각 개인이 분업에 노예처럼 종속되지 않고, 그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진 다음, 또한, 노동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1차적인 생명욕구가 되고, 또한 각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그들의 생산성도 또다시 높아지고, 온갖 협동적인 부의 샘이 풍부하게 솟아나게 된 다음 — 그때야 비로소, 좁은 부르주아적인 권리라는 지평을 완전하게 넘어서서, 사회는 그 깃발에 이렇게 쓸 수 있다. 즉,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 ! 고」

이 「공산주의의 보다 고도의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개인 소비 수단의 분배 측정 기준 자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 된다. 낡은 사회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것 같이,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과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협력체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로서의 『고타 강령 비판』에서는, 「온갖 협력적 부의 샘이 풍부하게 솟아 나오게 된 다음」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생산력의 발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분업이 기본적으로 지양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노동 그 자체가 각자의 「제 1의 생명욕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그에 따른 생산성의 그때까지와는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큰 발전 위에, 물질적으로도 정신적 · 문화적으로도 무한히 풍부한 세계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를 「필연성의 국가」에서 「자유 의 나라」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 「노동일 단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폐지에 따라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의 구별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부분은 점점 단축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 사회적 활동을 위해 얻게 되는 시간은 점점 커진다.」(『자본론』)는 점에 있다. 노동 시간이 대폭 단축 되면, 남은 모든 시간은 각 개인이 자유롭게 정신적 · 사회적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각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나는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바탕에서 생겨난 제반 조건의 혁명적 재구성에 의해, 기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론』이 제기하는 가치 법칙을 폐하는 것은 종래,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것처럼 해석 되어온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에 승리하고 자본주의의 폐지를 전세계 규모로 끝까지 해낸다면, 의식적인 격렬한 투쟁에 의해, 비교적 단기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은 이미 완전히 주어져 있다.

또 하나는 「막 태어난 단계」에서 「보다 고도의 단계」로의 이행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고, 최초의 단계를 완성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기계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는 자본 폐지에 착수하면 그 순간부터, 「보다 고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전체 프로세스가,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서, 폭발적인 기세로 시작된다.

또한 21세기인 오늘날, 생산력의 발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았던 19세기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에 도달하여 있다. 오늘날, 모든 인류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은 과거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으며, 각 사람의 1일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8 시간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짧은 시간으로 충분하다는 설도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유의 나라」는,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승리를 실현하게만 된다면,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인민에게 있어서 완전히 손에 닿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스탈린 주의의 범죄성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전복과 변혁 위에 성립한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왜곡하여, 사회주의 · 공산주의를 그 본래의 모습과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온 것이 스탈린주의다.

▼ 일국 사회주의론으로의 왜곡

구소련을 시작으로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란 계획경제다 라고 하며, 국가가 위에서 경제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 생각을 유포시켜 왔다. 그리하여, 생산 방법의 「국유화」와 국가에 의하여 위에서부터의 「계획경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제 1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강변하여 왔다.

89 ~ 91년의 소련 및 동유럽의 붕괴는 이 커다란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한 것이다. 오늘날 잔존 스탈린주의 · 중국이나 일본 공산당 등이 그 파산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시장 경제를 통한 사회주의에의 길」을 내세우고, "자본 폐지 등을 하지 않아도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걸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론을 그 근본부터 왜곡하고 부정하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승리한 러시아 혁명이, 뒤따른 독일 혁명의 패배에 의해 일단 고립이 강요되는 가운데, 레닌 사후 러시아 공산당의 세력을 장악한 스탈린이 세계 혁명과의 결합 없이도 「일국에서라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 완수의 투쟁의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이 투쟁에서 도망하고, 그 굴복과 도망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근본적으로 왜곡 하는 「이론」으로서 궁리해 낸 것이다. 이 일국 사회주의론이야말로 스탈린주의의 기원이다. 스탈린의 지도 아래의 구소련에서 시작되어, 그 후에 모택동의 중국 혁명도, 티토의 유고슬라비아도, 더하여 북한이나 쿠바도, 그 모두가, 일국 사회주의론을 토대로 현재에 이르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그렇지만,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근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세계 혁명으로서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은 자본주의 시장 전복을 전제하고 있으며,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 = 결합한 노동자의 공동 생산은, 국제적인 결합 속에서야말로 진정으로 쟁취해 가는 것이다. 한 국가의 틀 안에서의 자급자족적인 「공산주의」 따위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세계 혁명과 단절된 곳에서 실행하는 일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자체가 완전히 자기모순이며 당연히 왜곡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단적인 현상은 생산성 주의로의 변질이다.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혁명적 전환의 핵심은, 자본 폐지를 지렛대 삼아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해체와 혁명적 재편성에 있다. 이것은, 세계 시장의 전복과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결합, 즉 세계 혁명의 완수를 향한 투쟁의 전진과 일체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이 길을 단음으로써, 공산주의를 향한 국내 건설의 최대 핵심은 생산력의 고도화에 있다고 하고, 오로지 그것을 자기 목적화하여 생산성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 노동자 국가의 변질

애초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바탕으로서 생산 수단의 국유화 계획 경제로의 이행은,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에의 전환과 생산 관계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향한 투쟁과 결합하고, 이를 향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의미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 노동자가 명실 공히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 경제 운영의 주체가 되고, 생산자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이다. 그에 의거하여 비로소 경제 전체의 계획적, 의식적인 조직화도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과 분리된 곳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의 자기 목적화는, 「계획경제」를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의 경제 통제로 슬쩍 바꿔치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스탈린주의는 1920년대 말부터, 「5개년 계획」 등으로 칭하면서 화려하게 전개해온 「생산력 발전」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농민의 철저한 수탈에 바탕을 둔 폭력적인 공업화 이외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과 함께 강행된 농촌에서의 강제적 집단화는, 농민들의 저항에 대한 피의 압살을 동반하고, 역으로 농촌의 황폐와 장기간에 걸친 농업 생산력의 저하를 이끄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공업화 정책의 강권적 추진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손에서 당과 국가의 실권을 박탈한 스탈린주의 관료층이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운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것에 대한 노동자와 농민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 무서운 공포 정치가 전개되었다.

▼ 국제적 단결의 파괴 및 해체

한편으로 이 일국 사회주의론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대한 가공할 파괴가 되어 나타났다. 노동자계급의 본질은 본래, 국제적으로 단일 계급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노동자가 국경에 의한 분단을 깨부수고 하나로 단결한다 —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야말로, 노동자계급 자기해방 투쟁에 있어서 생명선이다. 스탈린주의는 이 생명선을 파괴하고,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하여 해체하였다. 「사회주의의 조국 · 소련의 방위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소련 방위의 수단으로 전략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국 사회주의 노선 아래에서의 「소련 국가의 방위」란 결국에는, 연명하는 제국주의와의 「공존」 속에서 스스로의 체제 안정을 찾아 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제국주의의 위기 폭발 속에서 불가피하게 터져 나온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세계 혁명을 향한 투쟁을 연달아 배신하고, 무자비하게 압살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1930년대 이후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스탈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함과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다」라는 마르크스의 가장 큰 핵심을 파괴하고,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소비에트를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노동자 국가를 변질시켜, 결국은 노동자계급해방투쟁의 완전한 반혁명적 적대물, 「공산주의」의 명분아래 프롤레타리아 혁명 운동을 압살하는 반혁명으로 전략한 것이다.

이 스탈린주의는, 이미 20 수년 전 구소련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로 말미암아 완전한 파산을 하였으나, 스탈린주의에 의한 공산주의의 왜곡은 지금도 세계의 계급 투쟁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스탈린주의의 완전 타도는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일환이다. 제국주의 타도와 함께이 투쟁을 최후까지 완수하는 것은 21세기혁명의 불가결의 과제이다.

3 혁명의 핵심 문제-노동계급에 의한 국가 권력의 탈취

(1)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 출발점

자본주의 사회의 전복, 자본의 폐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확대 발전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정치권력을 탈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르주아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절대 조건이며, 현실의 출발점이다.

애초에 국가는, 마르크스 · 엥겔스와 레닌이 밝힌 바와같이, 타협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산물이며,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계급 지배의 기관이다. 국가는 원시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가 물질적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여러 계급으로 분열하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생겨났다.

그것은 보통,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그 지배 계급으로서의 이해를 사회 전체에 강제하는 수단이며, 그 때문에 외견상은, 사회위에 서서 「전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형태를 취한 권력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저항과 반란을 국가 권력 = 공적 폭력의 발동에 의해 억제하고, 진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이 스스로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이며, 그 본질은 예외 없이, 부르주아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이다. 국가의 형태가 군주제인지 공화제인지, 노골적인 군사독재정권 인지, 아니면 「민주국가」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지의 구별이, 그 본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부르주아지 계급의 지배를 타도하고 그 위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세운 국가는,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무엇인지에 대해 마르크스는 문제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에서 후자으로의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정치적 과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타 강령 비판』)

이 「정치적 과도기」는 구체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세계 혁명의 완수를 향해 맹렬히 투쟁해 나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신생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향해,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해체와 재편성에 전력을 다하여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의 국가를 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계급 대립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 단계에서는,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본적 성격은, 노동자 국가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본질이 사회의 불과 1% 소수자에 의하여 다른 99%에의 독재인 것에 비하여, 사실 전혀 반대로, 99%의 압도적 다수의 1%에의 독재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은, 탄생 순간부터 본질적으로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국가의 연장선상에는 없는 국가이며, 스스로의 사멸을 이미 준비하고 시작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왜 필요한가?

하나, 정치권력을 장악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의 폐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공권력의 사용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에게서 생산 수단을 몰수하여도, 지금까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살아온 옛 지배계급에 대하여 다른 노동자와 농민과 같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도, 부르주아지의 필사적인 저항을 혁명적 폭력으로 분쇄하는 것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향유하고 있던 특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사유 재산의 몰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없다.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에 의한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굳은 강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혁명에 승리하는 순간부터, 타도한 구지배계급과의 사투가 한층 더 심해지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폭력 혁명이다.

하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막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즉시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를 절대 쟁취해 나간다는 결의를 프롤레타리아트가

하나의 「국가의지」에까지 고양하여, 그 바탕에 전 인민을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을 폐지하고, 자본주의 생산 관계의 전복과 재편성에 의해 새로운 경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철저한 목표 의식의 노력과 격투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계급 사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오물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다. 「자신만 좋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덮고 있던 가치관이 당장 사라져 없어질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옛 사회의 오물을 일소하여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진을 쟁취하는 것은,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굳은 결의와 뜨거운 실천, 격투가 필요로 한다. 이 실천과 격투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힘을 국가라는 하나의 권력으로 뭉치고,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 총궐기하여 나아가야 실현된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 사회 폐지를 정면으로 내걸고,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투쟁을 최후까지 해나가는 스스로의 계급의지를 전 사회에 확고하게 관철하고, 새겨서, 다른 모든 계급, 모든 계층의 인민들을 남김없이 합류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이 격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변혁에 잇따르는 변혁을 쟁취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하는 능력을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의식적인 투쟁 없이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규율을 세워 나갈 수 없다.

거대한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주체로 일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그에 대신하여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어, 전 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자기 자신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급속하게 배우고 익혀 나간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농민·어민, 도시 중소 영세 자영업자 등의 모든 계급, 모든 계층의 인민도,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양대계급이 정면으로 생사를 걸고 격돌하는 가운데, 프롤레타리아트 진영으로 굳게 합류하여 함께 싸우는 것에 의하여, 노동자계급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당사자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주력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야말로, 도시와 농촌과의 대립을 비롯한 계급 사회에서의 분업과 그 고착화에서 오는 대립은 극복되고, 완전히 새로운 생산자 공동체가 형성되게 된다.

「독재」라는 말에 있는 과격함에 질려서, 혁명 승리 후에 세워지는 노동자 국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단언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노동자 국가가 달성하여야 할 이러한 역할을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역으로, 모든 사회, 모든 대중을 향해 스스로의 권력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공연히 단언하고, 국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독재」의 목적이고, 그를 위하여 인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면에서 제기한다. 그리고 전 인민의 자주적, 주체적인 쫓겨난 것을 호소하고 투쟁하여 나가는 것이다.

▼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기만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기존의 국가 기구를 탈취하고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래의 국가기구를 일단 철저히 파괴하고, 해체해서, 그 위에 종래의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19세기의 파리 코뮌의 투쟁과, 20세기의 러시아 혁명에 의한 소비에트 수립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에서 노동자계급으로의 권력의 이행은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본 공산당의 「다수자 혁명」론은, 이러한 국제 프롤레타리아의 역사적인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는 완전한 기만이며, 부르주아 독재 국가를 미화하고, 거기에의 영원한 굴복을 조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역으로, 현재의 부르주아 의회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혀 다른 제도로 바꾸는 것에 있다.

부르주아적 의회 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근대의 대의제 국가는, 부르주아 독재의 가장 안정된 형태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에서는 자본가 계급은 그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 한층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는, 정부를 통째로 매수하여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금융 자본에 의한 시장지배를 지렛대 삼아 정부의 재정 및 정책을 사실상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는, 은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부르주아 국가에서 선거 및 의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뿐인 완전한 기만이다. 거기에는 마치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한 표의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여, 누구를 정권의 자리에 앉힐지를 초계급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하는 속임수가 쓰여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르주아계급과 그 대표자가 자금력을 동원하여 선거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지배 계급의 어떤 성원이 의회에서 「인민 대표」

에 입후보하여, 인민을 짓밟을 권리를 얻을 것인가를 몇 년에 한 번 결정하는 — 여기에 오늘날 국가에 있는 선거와 의회의 본질이 있다.

물론 노동자계급은 그렇다고 하여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부르주아지 계급 측에서 노동자 대중을 정치의 장으로 억지로 끌어 들인 이상, 이것을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형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로 바꾸기 위하여, 혁명적인 의회주의 전술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투쟁한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와 같이, 오늘날의 국가에서 노동자계급이 그의 정치적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의회를 통하여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부르주아 의회의 최대 기만은, 그것이, 국가의 실체인 관료적·군사적인 중앙집권기구에의 봉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잡담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대와 경찰,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그물눈처럼 깔린 통치기구라는 이 거대한 관료적·군사적 기구가 바로, 부르주아국가의 특징이자, 최대의 핵심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이 기구를, 자본과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존재인 거대한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고 통치해가기 위해서는, 불가결의 수단으로 발달 시켜 왔다. 특히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오랜 연명을 통하여 이 기구는, 의회의 형해화의 진행과 표리일체로 점점 비대해지고, 이제 강대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까지 성장하여 왔다. 그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몸에 박힌 기생체이며,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바탕에는 문자 그대로 「사회에 이무기처럼 달라붙어, 그 모공까지 막고 있는 기생체」(마르크스)가 되어, 사회 전체에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기생체를 부르주아 의회 제도와 함께 먼저 산산이 분쇄하는 것 없이는 자기 자신이 내세운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서 모든 방향에서 자신들의 몸을 거대한 힘으로 깔아뭉개오는 이전 권력기구를 철저히 파괴하여 날려버리지 않는다면 몸을 찢는 것도, 자유롭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 코뮌형 국가의 수립

그렇다면, 기존의 국가를 대신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세운 새로운 국가는 어떤 것인가? 그 원형은, 파리의 노동자가 1871년에 봉기하여, 불과 2개월 이기는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코뮌」으로서 세워서 투쟁한 경험 속에 있

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을 총괄하여 쓴 『프랑스의 내란』에서,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해방을 위한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다」라고 단언했다.

1905년과 17년의 러시아혁명에서 러시아 노동 계급이 탄생시킨 소비에트는 파리·코뮌의 재래·재현이고 발전이었다. 레닌은 러시아 혁명에서 승리하기 직전의 1917년 9월,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의 제기를 계승하고 이 소비에트 권력이 어떤 것으로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첫째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이란, 무장한 노동자 권력이라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찰과 군대라는 무장한 인간의 특수한 집단을 가지고, 그 거대한 폭력 장치에 의해 인민을 지배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는 이 특수한 폭력 장치를 해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 무장한 인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치환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

그것은, 「다른 누구와도 나누어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대중의 무장력에 직접 입각한 권력」(레닌)이며, 지금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해 왔던 공적 폭력의 해체위에,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부르주아계급의 저항을 억압하는 혁명적 권력으로 등장한다.

둘째는, 소비에트의 의원과 관료 (행정권력의 행사자)의 완전한 직접선거제·책임제·수시해임제에 있다. 셋째는, 모든 공무는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에서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엄격하게 의무 지운 것에 있다.

이것들은, 부르주아국가에서 의원 및 고급관료가 「인민의 대표」 또는 「공복」이라는 이름을 걸고, 실제로는 노동자인민의 훨씬 위에 서있는 존재로서 인민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휘하는 형태를 폐지하고, 이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에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부르주아국가가 그들에게 준 치외법권적인 사회적 특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르주아회의의 「잡담 장소」를 폐지하고, 인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행동하는 기관(노동자평의회)로 바꾸는 것이다. 파리 코뮌에서 세워진 이 노동자평의회(= 코뮌)는, 러시아 혁명에서는 「소비에트」라고 불렸다. 소비에트는 입법기관임과 동시에 집행기관이며, 인민과 직접,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결정한 것을 스스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책임을 진 노동자계급의 자기 권력이다.

『국가와 혁명』에서 정리·제기된, 이러한 원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계급의 손에서 권력을 탈취한 그 순간부터 즉시, 정치적 억압수단도, 대의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기구(행정 기구)도 일체 없이, 새로운 사회에 한 걸음에 이동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일거에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상이다. 따라서, 이전 국가기구를 파괴·분쇄하여 세워지는 노동자국가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현재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폭력 장치나, 부르주아 의회의 기만이나, 인민으로부터 유리된 특권적 관료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된다. 지금까지의 국가에서는 그것들은 모두, 사회의 특권적 소수자를 위한 특별한 제도이었지만, 프롤레타리아국가에서는 억압기관의 담당자는 무장한 인민이고, 대의제와 관료기구는 사회의 압도적 다수자가 그 단결의 힘으로 사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한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스스로 실행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다. 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부적절한 인물이나 행태는 노동자인민 자신의 손에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가장 철저한, 진짜 민주주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전환이다.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분쇄된 이전 국가기구 대신에 새롭게 생겨난 노동자 국가의 국가기구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질이 다른 지극히 중요한 성격을 부여한다. 즉 그것은, 「모든 관료를 점차 없애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관료기구」(레닌)로 건설되어진다.

▼ 스스로의 사멸을 준비하는 국가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내란』에서, 코뮌제도는, 「사회에 기생하여 그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국가 기생체에게 착취되었던 힘의 전부를, 사회에 반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권력탈취에 의해, 이전 국가의 관료적·군사적 중앙집권기구를 전면 해체하고, 무장한 노동자의 단결된 힘에 의해 직접 유지되는 국가를 만들고 그 곳에서 사회를 운영하여 가지만, 그것은 이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 기능 중 단순한 억압적인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노동자 국가를 매개로 행사해 나간다(사회에 반환하여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바탕에 노동자 인민의 대다수가, 혹은 전체 인민이, 국가 제 기능의 수행에 스스로 참여해 가는 것이다. 코뮌형 국가는, 바로 그것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국가형태인 것이다.

이에 대해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이미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서 출발하여, 노동자로서의 각자의 경험에 입각함과 동시에, 또한, 무장한 노동자의 국가권력에 의해 지지받는, 극히 엄중한 철의 규율을 조성해 나가면서, 자신이 대규모 생산을 조직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국가 관료의 역할을, 우리의 위탁의 단순한 집행자 역할에, 책임을 가지고, 해임할 수 있는, 약간의 봉급을 받는 『감독과 경리』(물론, 모든 종류, 형식, 등급의 기술자를 포함하여)의 역할을 줄이는 것일 것이다. …… 대규모 생산을 기초로, 이러한 형태로 시작해 간다면, 그 자체로 모든 관료제도는 점차 「사멸」해가고, 또한, 형식적이지 않는 질서, 임금노예제도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서 — 점점 단순화되는 감독 및 경리의 기능이 모든 사람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이어서 그것이 관습이 되고, 최후에는, 인간의 특수한 계층의 특수한 기능으로서의 없어지는 질서 —가 점차 만들어져 간다.」

이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에 의해 기성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코뮌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거기에서 즉시 국가 그 자체의 사멸을 향한 전진을 개시하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와 동시에, 자본의 폐지를 지렛대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전복 =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향한 전진과 불가분 일체의 프로세스로 쟁취하여진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 모든 인민이 다 같이 생산담당자임과 동시에 정치의 주체로서, 즉 노동자 국가의 직접 담당자어로 의식적·적극적으로 조직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착취자가 최종적으로 근절·일소되어 프롤레타리아 권력이 제압하여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시점에서 국가로서의 국가는 사멸한다. 사회의 여러 계급으로의 분열과 대립이 없어지고, 계급사회 그 자체가 완전히 지양되어진다면, 「계급지배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역할은 당연히 끝난다.

그리고 더하여, 사회적 생산의 관리·운영은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 되고, 실제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순서대로 담당되어지는 것으로 되었을 때, 또한 사회적인 규제는 더 이상 위로부터의 감독과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체 자체의 자주적인 규율·기준이 되고, 하나의 「관습」이 되었을 때, 국가는 최종적인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 소멸한다.

▼ 「국가의 사멸」에 관한 레닌의 제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이 국가의 사멸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제반 조건은 자본주의사회 가운데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본주의는 대규모 공장생산과 함께 철도나, 우편, 전화 등의 대량수송수단이나 통신수단을 만들어 내어, 고도의 문명을 창출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제반 기능의 대다수를 「등록, 기입, 점검과 같은, 극히 단순한 작업」으로 귀착시켜, 그러한 작업은 이제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레닌은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서, 특권적인 것, 「상사」적인 성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제도를 예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우편은,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의 형태로 조직된 경영이다. 여기에서는, 많은 업무를 짊어지면서 굶주리고 있다 『보통의』 근로자의 위에, 같은 부르주아적 관료제도가 덮쳐누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적 운영의 기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 자본가를 쓰러뜨리고, 무장한 노동자의 철완으로 이러한 착취자의 반항을 분쇄하고, 근대국가의 관료기구를 파괴시켜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는, 『기생체』를 없앤, 고도의 기술을 장비한 기구가 나타난다. 그리고 결합된 노동자는, 스스로 기술자, 감독, 서무를 고용하고, 그들 모두의 노동에 대하여, 일반적인 모두의 『국가』 관리의 노동에 지불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여, 이 기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즉,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세우고, 이를 통해 「국가의 사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길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본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무장한 노동자의 철완」 아래, 이미 형성된 제반 조건을 확 바꾸어 혁명적 재편성을 한다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신이 그러한 조건을 점점 생산해내고 있다고 레닌은 말하고 있다.

▼ 4대 산별결전이 갖는 위치

21세기의 현대에서의, 이 레닌의 제기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구의 기술적인 고도화는 레닌의 시대보다 훨씬 나아가 있고, 그 실무도, 노동자나 농민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갖지 못했던 러시아 혁명 당시와는 달리, 바로 기본적으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에는 레닌이 말하는 「기술자, 감독, 경리」의 일은 이미 그 대부분이 현장의 노동자 자신이 담당하고 있다.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 「전문가」의 협력 없이는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실제로 지금, 오늘날의 국가·사회에서 고급 관료뿐만 아니라 각종업무의 「감독」이라고 칭하고 훌륭한 척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를 채찍과 사탕으로 분단 지배하는 것일 뿐, 중요한 일상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요즘은 국가기구의 한층 비대화에 동반하여, 일본의 경우를 봐도, 적게 어림잡아도 수백만인 규모의 거대한 공무원 노동자가, 부르주아 국가의 관료기구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의 하인인 고급 관료와는 달리, 그들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모든 실무를 맡아 일 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살아 갈 수 있을지 말지의 소득밖에 얻을 수 없다. 더하여,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의 교통수단이나 통신 수단, 사회 인프라 부문이나 에너지 부문 등이 국가와 결합하여 대규모로 발달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지극히 많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야말로, 이 사회를 하나의 사회로서 현실에 성립시키고 있는 가장 중심적 존재이다. 게다가 부르주아 계급은 오늘날 그들이 현장 노동자를 점점 중노동·강한 착취의 지옥에 밀어 넣어 가면서, 그 존재 없이는 현장 업무는 전혀 돌지 않는 상태를 날마다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공무원 노동자·공공부문 노동자가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총궐기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강권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해 왔던 부르주아의 하수인들을 타도하고, 그들을 뿌리 뽑아 추방하여 직장의 지배권을 자신들의 손에 붙잡는다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관료기구는 그 내부에서 완전하게 전복되고, 해체된다. 그것을 대신하여, 현장 노동자가 그 단결된 힘으로 직무의 일체를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전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적인 기구가 즉시 창출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철을 기축으로 하는 4대 산별결전은, 최종적으로 거기로의 길을 개척하는 투쟁으로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부르주아 측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공 부문의 전면 민영화 공격이 일본에서도 세계에서 일제히 격화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종래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 지배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부르주아의, 최후의 연명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민영화, 외주화, 총 비정규직화를 극한까지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모든 저항과

반란의 싹을 낳는데 그 최대 핵심이 있다. 바로, 예방적 반혁명 공격 그 자체인 것이다.

원래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민영화 공격을 그 중심적 기둥에 두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공황과 「3·11」대지진이 만들어 낸 혁명적 정세 하에서, 전 세계의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공포에 몰려, 민영화, 외주화, 총 비정규직화 공격에 보다 전면적이고 극한적인 대 전개로 돌진하고 있다. 거기에 타협의 여지 따위는 일절 없다.

이곳에서의 격돌은 이제, 혁명과 반혁명과의 서로 생사를 건 격돌로서, 어디까지든 전개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 되었다. 4대 산별결전을 시작으로 한 이 공방에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은, 21 세기 프롤레타리아 혁명 승리에 대한 결정적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2) 노동자 대중의 자기 권력으로서의 소비에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하여,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을 확인하여 두고 싶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수립과 그 아래에서의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진은, 수백만, 수천만이라는 엄청난 노동자 대중의 혁명에의 주체적 쫓기와, 그 속에서 뜨겁게 풀려나는 자기해방의 거대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해서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리 코뮌도, 러시아 혁명 때의 소비에트도, 그러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인 대 운동 속에서 봉기한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스스로의 손으로 대중적으로 창조한 것이다.

코뮌을 창출한 파리의 노동자 사이에, 마르크스주의자의 견고한 조직이 이미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코뮌의 지도부는, 블랑키주의자나 프루동주의자들의 이런저런 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봉기한 노동자 대중과 함께 나아가, 대중의 사이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끓어오르는 열렬한 기대와 힘에 의지하여, 실로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였다.

러시아 혁명에서 태어난 소비에트도,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지도하에 처음부터 목적의식적으로 계획되어 탄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정(帝政)타도 투쟁의 결정적인 폭발의 순간에, 노동자계급의 사이에서 절반 정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파리 코뮌의 경험을 저절로 후계 발전시킨, 그야말로 「노동 계급의 자기 권력」 그 자체였다.

▼ 계급의 백열적 쫓기야말로 원동력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이라고 말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노동자 자기해방의 원리는, 혁명의 가장 열띤 시점에서야말로 매우 깊고 격렬하게, 철저하게 관철 되는 것 이라는 것이다.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쟁취해야만 하는 것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그 스스로의 계급적 입장에 확실히 서서, 후퇴 없는 쫓기를 개시하였을 때, 그들은 바로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시작한다. 이것이 코뮌을 낳고, 소비에트를 탄생시킨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코뮌형 국가」라는 이 형식 그 자신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노동자 국가를 만들어 내고, 지원, 움직여가는 프롤레타리아트 인민 자신의 주체적 · 정치적 쫓기 속에 있다. 그것 없이는 코뮌(소비에트)의 제반 원칙도 내실없는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는 혁명에 있어서의 당 (계급의 지도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소비에트」는 당이 단숨에 머릿속에서 구상한 건설 계획을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만들어 내어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이라는 데에 있다.

또한, 당이 그 지역 거점을 동심원적인, 계획적 · 의식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소비에트가 된다, 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비에트는, 부르주아 국가 권력에 대신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 그것이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인민의 거대한 쫓기의 도가니 속에서, 말 그대로 대중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위대함은,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 쫓기 속에서 태어난 소비에트의 본질을 즉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싹으로 움켜잡고, 그 혁명적 의의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권력탈취의 마지막 승리에 연결하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전력으로 끝까지 투쟁한 것에 있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승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이러한 노동자 대중의 엄청난, 근원적인 쫓기의 개시에 대하여, 레닌 지도하의 볼셰비키당이, 이 노동자 대중과 깊은 결속, 모든 계급 및 모든 대중의 거대한 혁명적 에너지의 전부를 결집하여 부르주아 국가 권력 타도의 일제 봉기에 이끌어가고, 극한의 목적의식적 투쟁을 관철하는 것에 의해 실현 되었다. 전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규모의 자기해방적 · 백열적인 쫓기가, < 계급의 지도부 >로서의 혁명당의 존재 (그것은 또한,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이 자본 · 권력과 장기에 걸쳐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사투 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었다)와 결합하는 것으로서,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로 전환 =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의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1918년의 독일 혁명의 경우, 대중적 쾰기의 도가니 속에서 「레테」(평의회)라고 불리는 소비에트적 조직이 생겨났으나,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계급에 있는 힘과, 당이 달성해야 할 역할과의,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노동현장 장악이 토대

소비에트 권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큰 토대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현장의 장악에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지배를 근본부터 뒤집기 위한 결정적인 최후의 결전에 돌입했을 때, 그 정점에서, 쳐부셔야 할 부르주아 국가 권력에 대신하는 자신들의 권력을, 소비에트로서 만들어낸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이나 공장 점거 등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현장 장악을 최대의 기반으로 창출 된다.

그것은 먼저 첫째로,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전 노동자 인민의 일제 무장봉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타도하기 위한, 「봉기 기관」에 스스로를 밀어 올려 간다. 동시에, 둘째로, 탄생한 그 순간부터, 파멸의 끝에서 있는 부르주아 정부로부터 통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탈취하고, 자본가 계급의 사보타주를 분쇄하여 노동자 자신에 의한 물자의 생산과 배급을 조직하고, 경제와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한 투쟁을 개시한다.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힘과 그 직장 지배 없이는, 소비에트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권력탈취에 승리한 노동자계급은, 먼저 최초로, 자본가 계급의 사유재산으로 된 사회적 생산 수단의 몰수에 착수하지만, 이것은 소비에트 권력 =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혁명적인 무력행사 없이는 실현하지 않는다. 그것을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 하는 것은 각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투쟁이다. 즉, 노동자가 직장의 전체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혁명 정권이 발하는 포고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서부터 일체가 시작된다.

더욱이, 노동자 국가의 아래에서의 생산과 사회 전체의 재조직은, 전국의 노동현장에 노동자가 자신들의 직장을 실제로 관리·운영하고, 생산의 전 과정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직장의 전 노동자가 소비에트 권력의 바탕에서 단결하여 총궐기하고, 의지의 통일을 부단히 쟁취하여,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스스로 실행 하고, 점검 하여가는 투쟁에 있다. 이것이 소비에트 권력의 최대 기반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떠받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계급에 의한 노동현장 장악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권력탈취에 앞장선 자본과의 격렬한 투쟁 과정에서의, 날마다의 투쟁을 그곳을 향한 목적의식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조합과 당이 수행하는 역할이 결정적이다.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단결하여 투쟁해야 비로소 자본에 맞설 수 있게 되나, 거기에 형성된 단결은, 자본에 의한 매일의 착취와 싸우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직장 지배를 그 내부로부터 타파하고, 뒤엎어 가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당은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일체가 되어, 이 계급적 단결의 강화와 발전을 의식적으로 쟁취해 나가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한다.

이 직장 장악을 위한 자본과의 격투를 날마다의 투쟁에 철저히 목적의식적으로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개개인의 직장을 러시아 혁명 때의 봉기의 최대 거점이 된 페트로그라드의 프틸로프 공장과 같이,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거점으로 새로이 만드는 것. 이러한 거점 직장을 전국·전 산별과 지역 가운데에 무수히 구축하는 것. 이것이 권력 탈취의 기초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한 이 투쟁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적 생산의 전면적인 장악·관리·운영에의 길이 현실에 열리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투쟁이 일정한 지점까지 전진하는 것 없이는, 부르주아 국가 권력 타도의 봉기의 승리도,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수립도 그 아래의 공산주의로의 전진도 있을 수 없다.

더하여, 소비에트 권력의 원천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무장에 의해 직접 유지된다는 점에 있으나, 그 「무력」의 근원도 역시 노동자계급에 의한 직장 장악에 있다. 다시 말하면, 혁명에 궐기한 노동자는, 그들의 거점 직장 가운데에서부터 가장 헌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을, 「노동자 민병」로서 소비에트로 보낸다. 그들은, 민병으로서, 소비에트 방위와 봉기의 승리를 위하여 다른 일체를 내던지고 투쟁한다.

이 노동자 민병의 등장은, 제국주의 군대의 해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군대야말로 부르주아 국가를 지탱 하는 최대의 지주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군복을 입은 노동자」로서 병사 대중이, 혁명에 쫓겨난 노동자에게 총을 조준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대 안으로부터의 반란에 쫓겨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합류를 개시했을 때, 부르주아지의 지배는 최후의 보루를 잃고 붕괴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 민병의 등장과 제국주의 군대와와의 단호한 대치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발하여지는 「형제여, 누구에게 총을 겨누는가!」라는 열렬한 호소에 있다.

▼ 국내적 · 국제적 단결의 형성

소비에트는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직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적 단결을 최대의 축으로 하여, 기반으로서 창출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쳐부수는 밖에는 없다고 결의하여 봉기한 모든 인민의 힘을, 소비에트의 아래에 총결집하는 것으로 하여 생겨났다.

러시아 혁명 때에도,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와 나란히 농민 대표 소비에트, 군인 대표 소비에트 등이 각지에 잇달아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전체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축으로, 하나의 전국적인 권력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승리를 향한 노농동맹의 견고한 건설을 기둥으로, 모든 인민의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나도 남김없이 프롤레타리아 권력 아래에 단결시켜 가는 투쟁인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는 형태적으로는, 노동자계급과 다른 모든 계급, 모든 계층의 인민과의 「통일전선」이다. 또한 실제로는, 혁명 권력 수립 시점에서, 노동자계급의 사이에서도 부르주아 사회를 지배했던 사상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게 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사상이나 정치의식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 10월 혁명으로 세워진 소비에트권력이 처음에는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와의 통일 전선에 의한 권력으로서 출발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 인민 가운데 내재 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나 운동체의 「통일전선」이라는 표현 형식을 실제로는 채택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이고 과도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공통의 적에 대하여 힘을 합하였다는 의미에서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일 전선」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즉, 노동 계급이 중심이 되어 사회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거기에 직면 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계급, 모든 계층의 인민을 포함한 모든 프롤레타리아트 인민의 지혜와 힘을 총결집하는 것으로 돌

파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소비에트 권력의 본질이 그곳에 구현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그 핵심 중 핵심이다. 소비에트 권력과 그 노농동맹 아래에서야만, 계급 사회에 있는 도시와 농촌의 분단과 대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극복하게 되고, 사회적 생산 전부를 통일한 생산자의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로의 길이 진정으로 열린다.

노동자계급과 그 당이, 소비에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그리고 또한, 농민을 비롯한 전 계급, 전 계층의 인민과 노동자계급과의 사이에 극히 깊은 신뢰와 단결의 유대를 조성, 발전시켜 가기 위해 투쟁한다. 이 투쟁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투쟁을 최대의 추진축으로서의 거점으로 하는 것에 의해 전진한다. 자본과 투쟁하는 무기인 노동조합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 후에는 노동자국가=소비에트 권력을 실체적으로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모든 노동자에게 있어「공산주의 학교」가 된다. 그리고 계급이 소멸하고, 국가가 사멸한다면 당도 또한 소멸한다. 노동조합과 소비에트는,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 융합한다.

소비에트 권력의 이러한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자계급은 국제적으로 단일계급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세계혁명으로서만이 현실성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반드시 동시-일제히 혁명에 돌입하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국의 계급지배 구조나 프롤레타리아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한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지배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군세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한 위에, 직접 자국의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먼저 전력을 기울여 투쟁한다. 또한 혁명 승리 후에는, 스스로 노동자 국가를 세계 혁명의 완수를 향해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투쟁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제국주의와 이에 굴복한 스탈린주의아래에서 만들어진 민족과 국경에 의한 분단의 지양에 있다.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제국주의적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분단하고, 식민지·종속국에의 철저한 지배와 억압, 침략전쟁의 전개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해 왔다. 스탈린주의는, 러시아혁명의 승리가 일단은 전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과 민족해방투쟁과의 결합의 길을 막고, 반대로 소수민족에 대하여

제국주의와 같은 인종 억압, 말살 정책을 극한적으로 전개해 갔다. 이 역사는 전 세계에, 특히 제국주의 국가·강대국의 노동자 인민과 피억압 민족 인민 사이에 쉽게 타파할 수 없는 심각한 분단을 낳고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의 최종 말기인 신자유주의 아래에, 전 세계에 달하는 노동자계급의 엄청난 대열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분단을, 어떤 고난도 없이 한걸음에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단결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역사를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극복해가기 위한 의식적 투쟁이 필요하다.

소비에트 권력은 이를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민족·국적·국경을 넘은 단결체로서 적극적·압도적으로 확고히 세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완수 가운데서야 말로 민족 대립을 없애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최선두에 서서 투쟁한다.

또한 처음에는 각국에서 수립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느슨한 연합체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세계를 정말로 하나로 결합해가지만, 그 과정은 동시에,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축해온 다양한 문화의 모두를 다 같이 인류역사의 유산으로 계승하고,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된다.

4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준비 하는 것

(1) 20세기 혁명의 평가와 그 돌파

혁명적 정세의 성숙은, 자본주의 - 제국주의의 멍에에서의 해방을 요구하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쫓기를 확실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 대공황과 전 세계의 격동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세의 결정적인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전 세계에서든, 엄청난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전 인민이, 특히 청년 노동자와 학생이, 목숨을 걸고, 미래를 건 근원적인 쫓기를 이미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쫓기가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승리에 실제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다. 국제 계급투쟁의 역사는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 혁명의 승패를 가르는 것

노동자계급 인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의 쫓기는, 반드시 승리한다고만은 할 수 없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승리했으나, 1918년의 독일 혁명은 패배했다. 또한 1930년대의 격투나, 제2차 대전 후의 전후 혁명기에 있어서, 세계의 노동자계급은 제국주의의 전복에 다다를만한 거대한 투쟁에 일어섰으나, 러시아 혁명에 따르는 승리를 개척하지는 못하였다.

1949년 중국 혁명이나 1959년 쿠바 혁명은,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무장 해방 투쟁에 의해 타도하여, 혁명 정부의 수립에 성공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과의 결합의 길을 닫은 가운데 스탈린주의적 변질이 결정적으로 깊어져, 당초 목표로 한 노동자와 농민의 해방에의 길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전락하였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소비에트를 만들어 낸 엄청난 노동자·농민·군인 대중의 대 쫓기와, 혁명을 향한 모든 준비를 축적한 볼셰비키당의 지도가 살아서 결합한 것에 의해서 쟁취했다. 그러나, 그에 연이어 독일 혁명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혁명적 격동은, 제1차 대전에서 붕괴한 제2 인터내셔널을 대신하는 새로운 당과 혁명적인 노동조합 지도부의 미형성 때문에, 구체제를 타도하는 봉기를 실현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의 수립에 실패하고, 부르주아지 계급에게 다시 권력을 탈취 당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 및 제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혁명 정세의 성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적대하는 반혁명으로 전락한 스탈린주의의 결정적인 배신에 의하여 무참한 패배를 강요당하고, 그 대부분이 피의 바다에 침몰했다. 그러나 이 평가도, 「스탈린주의의 배신의 결과」라는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시의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스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왜곡·해체와 전면적-비타협적인 대결, 그것을 혁명적으로 타도하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트로츠키와 제 4 인터내셔널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스탈린주의 타도의 입장에 완전하게 서서 잘라내는 것을 회피하고, 반대로 「노동자 국가 무조건 옹호」의 슬로건을 내걸어 왔던 것도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계급 형성」이야말로 최대의 과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실현 하는 주체적 조건으로의 노동 계급의 〈계급으로서의 자기 형성〉의 문제이다.

혁명적 정세가 진짜의 혁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각 계층 사이에서, 심지어는 사회를 구성 하는 모든 종류의 인민 대중의 사이에서, 〈부르주아의 지배를 쳐부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한 시도 살아 갈 수 없다〉라는 강렬한

생각과 열정이, 수백만 · 수천만의 엄청난 규모로 뿔어져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그 중심에,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강고한 대열이, 스스로의 해방을 통해 계급 사회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부르주아지의 손에서 모든 권력을 탈취할 준비를 미리 갖추고 등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의식적인 대열은, 부르주아지와 의 장기간에 걸친 매일의 사투를 통해 미리 훈련되고, 잘 단련된 대열로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대열이, 거대한 혁명 정세 하에서 비로소 정치 생활에 들어온 거대한 대중과 결합하고, 그 대중과 일체화되어, 그 최선봉부대-기축부대가 되어 싸우는 것. 그것에 의하여, 모든 인민 대중의 앞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부로 등장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혁명의 승패를 가르는 최대의 열쇠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는, 부르주아 국가 권력 타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니다. 혁명에 승리한 프롤레타리아트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권력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즉시 자본 폐지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자본가 계급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배계급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즉, 사회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본주의로부터 인수한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문제점을 스스로의 과제로서 정면으로 인수하여, 그 극복과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계급 형성이라는 것은, 현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를, 바로 그러한 임무를 전 인민의 선두에 서서 헌신적으로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는 위대한 역사적 존재로 변혁하고, 키워 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2)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

이 계급 형성의 핵심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과, 계급적인 노동조합의 건설에 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실현하는 근원적인 힘은, 자본과 절대 비화해를 관철하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형성과, 그의 확대·강화·발전에 있다. 노동자계급은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아래에 단결 하여 노동현장에 있는 자본과 일상적으

로 투쟁해냄과 동시에, 자신의 계급적 이해를 구체화 하는 당을, 다른 여러 정당에서 독립한 자신들의 당으로서 만들어 낸다.

이 당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깊이 결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면서, 노동자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모든 부르주아적·소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와 투쟁을 끝까지 해나가, 자기를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등장시킨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계급으로서의 자기 형성을 쟁취해 간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모든 투쟁을 의식적으로 조직, 결합하고, 혁명의 승리에 필요한 일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노동조합은, 이 당과 결속함으로써 스스로의 투쟁의 의의와 역할을 자각하고, 계급적 단결을 더욱 강화·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또한, 이 당과 노동조합의 투쟁을 축으로 하여, 농민 등 다른 계급, 계층의 인민을 노동자계급 쪽으로 압도적으로 획득하고, 단결의 내부에 영입하여 투쟁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권력탈취를 향한 혁명 정세의 결정적 막판의 한가운데에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모체가 되는 소비에트(코뮌)를 엄청난 대중과 함께 조성,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당·노동조합·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쟁취해 나가는 무기로, 프롤레타리아트 자신이 투쟁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며, 그 어느 하나가 빠져도 진정한 승리를 전개해 나갈 수 없다.

특히, 혁명적 정세를 혁명으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 건설과, 노동조합의 계급적인 지도부 건설에 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일체 불가분전인 투쟁으로서 추진되어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세계의 노동자계급이 한결같이 직면한 최대 과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

무릇,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의 당이란 무엇인가? 당과 노동조합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노동자는 자본의 무제한의 착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그 단결형태로서,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하자마자 어디든지, 저절로 불가피하게 결성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존재와 투쟁 자체가 자본의 강압적인 직장지배를 그 발밑에서부터 파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노동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분단되고,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경쟁 원리가 직장에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본의 착취를 성립시켜온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은, 노동자의 단결, 노동조합 그 자체를 적대시하고, 그의 파괴에 전력을 다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단결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살아남기 위한 투쟁」= 자본과의 날마다의 사투를 끝까지 벌이는 것이다.

19세기 공장법 제정으로 시작된 노동자계급의 권리 획득이나 노동조건 개선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피와 땀의 투쟁을 통해 쟁취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대공황 하의 위기에 허덕이는 자본주의-제국주의에 의한 신자유주의 공격의 격화 상황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생존권을 위한 격돌이 또다시, 19세기 이상의 격렬함을 가지고 초점이 되고 있다. 자본에 매수된 노동 귀족과 어용조합이 그 앞잡이가 되어 노동자를 엄습하고, 임금의 대폭 삭감이나 비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자계급이 산업 혁명 시대부터의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탈취하는 식으로, 착취의 극한적 강화에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장에서의 반란에 의해 썩은 노조 간부를 추방하고, 노동조합을 현장 노동자의 손에 탈환하는 것,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부활시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의 노동자계급에게 제대로 살기 위한 사활이 걸린 투쟁 자체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은, 거기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자신이 원고를 쓴 제1 인터내셔널의 결의 「노동조합, 그 과거 · 현재 · 미래」에서,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과의 사이의 계렬라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임금 노동제도 그 자체와 자본의 지배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힘으로 한층 더 중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직접적으로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의 착취와의 날마다의 투쟁의 무기로서 만들어 졌지만, 이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은 스스로의 근본적 해방 = 자본주의 사회 전복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직된 힘」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노동자계급 혁명당의 존재와, 당과 노동조합과의 결합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당과 노동조합의 결합

실제로 노동자는, 자본과의 투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노동조합을 원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당을 원한다. 이 당은, 개별 노동자의 좁은 직업적 이익을 넘어 계급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고, 또한 노동자계급의 궁극적인 해방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한다. 이 당은 따라서, 프롤레타리

아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전부를 걸고 싸울 것을 결의한 사람들에게 의해, 마르크스주의의 당으로서, 혁명적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결집체로서 만들어 지게 된다.

또한 이 당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모든 부르주아 사회와 타협 불가능한 대립 관계에 있고, 부르주아 권력아래에서는 본질적으로 불법의 존재이고, 정치 경찰과 날마다의 사투가 불가결 하고, 또한 그 가운데 「당」으로서 단련 된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초적인 단결형태라면, 당은, 노동자계급의 일부이고 그 계급의식을 가장 치열하게 구현하는 최고의 단결형태이며, 가장 잘 단련된 계급의 전위이다.

문제는, 이 당이 노동 계급 전체에 얼마나 깊고 넓게, 생생하게 결합하여 활동해 가는가의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당인 공산당, 혁명적인 계급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대중, 즉 근로피착취자 전체와의 사이의, 올바른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 단 공산당이, 진정으로 혁명적 계급의 전위인 경우에, 이 당이 이 계급의 뛰어난 분자 전원을 포용하는 경우에, 완강한 혁명 투쟁의 경험에 의해 계몽되어 단련되어 온, 완전히 자각한,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로 된 경우에, 이 당이 자신의 계급의 모든 삶과, 또한 이 계급을 통해 피착취자 전 대중과, 뿔레야 뿔 수 없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계급과 이 대중에게 완전한 신뢰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당만이, 모든 자본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가장 가차 없는, 결정적인,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당에 의해 지도되는 때에 한해,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혁명적 공격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큰 각자의 힘을, 여지없이 발휘할 수 있다」(「공산주의자 인터내셔널 제 2 회 대회」의 기본적인 임무에 관한 테제」, 『레닌 전집』 제 31 권)

레닌이 말한 이러한 당은, 어떻게 하여 형성되는가? 그것은 바로, 당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레닌은, 「노동조합을 통하는 것 외에는, 노동자계급의 당과 노동조합 상호 작용을 통하는 것 외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발달은 생기지 않았으며, 또한 생길 수도 없었다.」(『공산주의에 있어서 좌익공론주의』, 『레닌 전집』 제 31집)고 말하고 있으나, 당 건설이 계급적인 노동조합의 건설과 일체로 투쟁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당과 전체 노동자계급과의 결합을 보장 하는 것이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에서 보면, 노동조합이 자본과의 일상적 게릴라전을 벌이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실현하는 「조직된 힘」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의 중심적 활동가가 당 아래에 들어가, 당과 굳게 결합해 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당도 노동조합도, 노동자계급이 그 자기해방 투쟁을 끝까지 투쟁해 나가기 위한 절대 불가결의 조직으로서, 투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둘이 일체적으로, 상호 발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을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주체로서 형성하고, 단련해 나가는 과정이다.

분명히 당과 노동조합은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양자를 전혀 다른 것으로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스탈린주의자와 같이 당을 노동조합의 더 위에 놓아 절대시하거나, 반대로 이에 대한 반발로 당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 「혁명의 히드라」를 육성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과의 대립이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이상, 직장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내부에, 자본 지배의 근본적 전복에 이어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요구에 따른 투쟁 가운데에도, 그 불씨는 반드시 존재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파업에는, 그 의미에, 문자 그대로 「혁명의 히드라(괴물)」가 깃들어 있다.

당은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일체가 되어, 직장에서의 일상적인 자본과의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과 함께, 그것을 쌓아가는 가운데 이 「혁명의 히드라」를 의식적으로 끌어내어,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가 단결 속에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존심을 회복하여 가는 투쟁이고, 자신 안에 있는 자기해방의 힘을 적극적으로 해방해 가는 투쟁이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체제를 공중으로 날려 버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거대한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이 투쟁이, 직장 전체 노동자의 주체적 쫓기를 통째로 꼬집어내어 투쟁으로서 전개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 조합이 시작한 투쟁이라도, 그것이 직장의 모든 노동자의 영혼을 받아들여, 소속 조합의 틀을 벗어나, 혹은 미조직노동자나 하청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직장의 전 노동자의 분노와 쫓기에 정말로 불이 붙었을 때, 자본과의 역학관계에 진정한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애초 노동조합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자본의 분단 지배를 쳐부수고 말 그대

로 「하나가 되는」데에 핵심이 있고, 그래서 「노동자의 기초적 단결형태」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이 투쟁 속에서, 자신들의 직장의 좁은 이해관계를 넘어 계급 전체 · 인민 전체의 이익을 지키고, 관철하는 입장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을 배워 간다. 즉, 노동현장의 장악을 기초로 하여, 실제로 사회 전체의 책임을 지는 세력으로서 등장 하고, 이를 위한 계급적 힘을 노동조합으로서의 투쟁 속에서 키워 나 간다.

역으로, 당과 결합한 노동조합 지도부에 의한 이러한 의식적 투쟁 없이는, 노동 조합 안에서는, 당면한 노동조건 개선과 각 직장, 각 산별의 좁은 직업적 이해관계의 틀 안으로 투쟁을 밀어 넣고 마는 경향도 생겨난다. 그 결과는, 자본에 의한 노조 간부의 매수와 조합자체의 체제로의 유입을 허용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당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다른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노동운동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갖지 않는다면 「노동 계급의 당」이 될 수는 없다. 노동현장에서의 투쟁과 결합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등은 무릇 공론이기 때문이다.

(3) 마르크스의 제기와 레닌의 격투

당과 노동조합의 이러한 본질적인 관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의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의 중요성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자 명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스탈린주의자 또는 사회 민주주의자는 일관 되게 당과 노동조합에 관한 마르크스의 제기를 왜곡해 왔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오직 경제투쟁을 싸우는 것에 있다고 했다. 게다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노동자의 지위나 생활 조건의 개선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로 축소해왔다. 정치 투쟁은 그것과는 별개로, 정당이 담당한다고 했다. 또한, 혁명의 문제를 노동조합 에서 논쟁하지 말라든지, 혁명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과제가 아니다든지 하는 주장 마저 횡행하여 왔던 것이다.

▼ 제1 · 제2 인터내셔널에서의 투쟁

거슬러 올라가, 1864년에 창립된 제 1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조합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프루동주의자들과 투쟁했다. 동시에, 주로 영국 노동조합 주의자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본과의 직접적 투쟁의 틀안으

로 좁게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과 투쟁했다. 앞서 소개한 제 1인터내셔널의 결의는, 그 당파투쟁의 산물 이다.

마르크스는 이 결의에서, 노동조합의 진정한 의미는 「자본 지배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직된 힘」이라는 점에 있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제는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투쟁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좁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의 인민의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단언했다.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과의 단단한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 — 이것에 자본주의 전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871년 파리 코뮌이후, 마르크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영국의 노동조합 주의자는, 「노동조합 운동과 파리 코뮌은 다르다」라는 주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쿠닌의 무정부주의자와 나란히, 제 1인터내셔널을 붕괴로 몰아낸 원인 중의 하나였다.

1889년에 설립된 제 2인터내셔널에서,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중대화되었다. 제 2 인터내셔널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의 노동자계급의 급속한 성장으로, 제1차 대전 직전에는, 독일 사회 민주당만 해도 100만명을 넘는 당원을 거느리고, 조직 노동자의 80%를 영향 하에 두는 거대한 세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그 지도부는, 당과 노동조합을 분단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경제 투쟁에 국한해 나가는 방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당이 하는 「정치 투쟁」은 오직, 선거에서 부르주아 의회에 다수의 의원을 보내는데 한정해 간 것이다.

그것은 당과 노동조합 내부에 「혁명 같은 것 하지 않고도, 자본주의의 개량을 차곡차곡 해나가면 된다」라는 개량주의를 낳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개량주의는 마침내 제 1차 대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제 2 인터내셔널 지도부의 총 붕괴와 변질 = 배타적 사회주의(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배타주의)로의 무참한 전략과 전쟁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와 총력으로 투쟁하며 < 국가와 혁명 > 에 관한 마르크스 · 엥겔스의 제기와 함께, < 당과 노동조합 > 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을 복원시키고, 한층 실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격투를 벌인 것이 레닌이다.

▼ 레닌의 당 조직론

『무엇을 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레닌의 당 조직론은, 실제로는,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론으로서 전개되어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제정 러시아(리즘)아래의 격심한 탄압과 노동조합의 비합법화에도 불구하고, 대중 파업에 연달아 휩쓸리고 있었다. 레닌은 이 속에, 혁명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의 본질을 찾아내고, 그들을 혁명의 주체로서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어떤 조직(노동자의 조직과 혁명가의 조직)이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집필했다.

그것은, 러시아 국내 경제주의자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제 2 인터내셔널 안에서 강해지고 있는 개량주의, 경제주의, 기회주의 · 의회주의적인 편향과 부패에 대한 투쟁의 시작이었다.

1903년에 시작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분열은, 당 조직론에 관한 대립을 직접적 계기로 하고 있으나, 그 근저에는, 노동조합의 위치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동시에 내포되었다. 멘셰비키는, 당시 제 2인터내셔널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역할은 경제 투쟁에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 정치 중립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는 1905년의 러시아 혁명의 패배 후, 그 교훈 속에서 혁명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결정적 중요성을 다시 배워서 습득하고, 노동조합의 중립론을 돌파하여, 역으로 「노동조합과 당과의 한층 밀착된 접근」을 제기하여 노선적으로도 확립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내에서 혁명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명확히 하고, 한편 그것을 실천적으로 관철하는 것으로 1917년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레닌은, 계급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투쟁을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고찰하였다.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노동자계급의 혁명당은 우선 첫째로, 전국의 노동운동의 지도를 인수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혁명가의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조직에는, 노동운동의 모든 지도부를 가능한 한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둘째, 이 당은, 정치 경찰과의 사투에 있어서 잘 단련된 직업 혁명가의 조직과, 노동자 대중 속에 깊고 넓게 그물망처럼 뻗어진 조직망과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자 대중 중에서, 혁명에 전 생애를 걸 것을 결의하고, 권력과의 사투에 있어서도 훈련을 쌓은 지도적 활동가가, 직업 혁명가로서 대량으로 생겨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기했다.

셋째, 이 당은, 계급 정세의 어떤 격변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일상 활동에서 봉기에 이르는 모든 투쟁을 일관하여 최후의 승리까지 관철하는 것이 가능한, 유연성과 견인불굴성을 겸비한 조직으로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을, 전국적 정치 신문의 발행과 그 배포망을 중심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제기한 것이다.

이 신문은, 노동자의 신문이고 동시에 공산주의자의 신문이며, 이 둘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다. 이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폭로를 조직하고, 계획적 · 계통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야말로, 집단적 선전자 · 선동자인 동시에 집단적 조직자이다. 이 신문과 그 배포망이야말로, 전국 각지의 투쟁을 하나의 당에 결집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봉기의 전야에 전 인민이 전투 배치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며, 혁명 운동과 노동운동의 최대의 무기라고 제기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 당과 노동조합 일체적 건설 > 을 위한 레닌과 볼셰비키당의 조직적인 격투를 토대로서 실현 된 것이다.

▼ 「당의 규율」이 의미하는 것

하나 더, 레닌이 격투한 것은, 멘셰비키로 대표 되는 소부르주아적 혁명성과 철저히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 당을, 현실의 계급투쟁에 진정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낸 것 이었다.

멘셰비키는 당의 강령을 지지하여 당과 협력 하는 자는 모두 당원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에 대하여 볼셰비키는 당의 조직의 하나에 소속하여 투쟁하고, 거기에서의 임무에 실제의 책임을 지고 활동하는 자만을 당원으로 규정했다. 양자의 분열의 계기가 된 이 당원 자격에 관한 대답은, 실은 당을, 혁명에 대하여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의 투쟁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인텔리겐차의 서클의 연합체와 같은 조직으로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실의 투쟁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적 규율을 관철한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를, 중대한 대답이었다.

레닌의 당 조직론의 핵심인 당세포의 건설론, 세포와 중앙위원회의 생생한 결합과, 그 결합 위에 성립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주의, 당의 「철의 규율」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기본 사상 위에 성립하고 있다. 그들은 당을,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당으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정치적 결집체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수불가결의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레닌은 후에, 러시아 혁명의 승리의 교훈으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의 무조건적 중앙집권과 가장 엄격한 규율」이 부르주아지에 승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라며, 이 「당의 규율」의 핵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당의 규율은, 무엇에 의해 지켜지고, 무엇에 의해 점검되고, 무엇에 의해 보강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자각에 의한 것이고, 혁명에 대한 그들의 헌신, 그들의 인내, 자기희생, 영웅정신에 의해서이다. 둘째, 가장 광범위한 근로 대중, 무엇보다도 먼저 프롤레타리아적인 근로 대중과, 하지만, 아직 비 프롤레타리아적인 근로 대중과도, 결합을 유지하고, 그들과 접근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들과 융합하는 능력에 의한 것이다. 셋째, 이 전위의 정치적 지도의 정당함에 의해서이고, 이 전위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의 정당함에 의해서이다 — 그러나, 그것은 가장 광범위한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정당성을 납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조건이 없으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전 사회를 개조하여야 하는 선진적인 계급의 당의 결실을 갖춘 혁명당내의 규율은 실현할 수 없다. 이 조건이 없다면, 규율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시도는, 반드시, 소용없는 것, 빈 구호, 허울뿐인 것이 된다. 한편, 이 조건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노고와 쓰라린 경험에 의해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쉽게 하는 것이, 바른 혁명이론이다. 그리고 혁명 이론은, 교조가 아닌, 정말로 대중적이고 실로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비로소,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탁상공론주의』)

「러시아는 단지 하나의 올바른 혁명 이론인 마르크스주의를, 미증유의 고통과 희생,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 영웅정신, 믿을 수 없을 만큼 끈기와 한결같은 탐구, 학습, 실천에 의한 시련, 실망, 점검, 유럽의 경험과의 비교의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고통 속에서 쟁취한 것이다」(동)

▼ 혁공동의 도달 지평

레닌의 당 조직론을 이런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적인 계급 형성론,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론으로서 새롭게 고쳐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주의에 의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의 왜곡이, 특히 이 당 조직론 영역에서 가장 악질적인 해독을 계속해서 끼쳐왔기 때문이다.

즉, 스탈린주의는, 당을 현실의 노동자계급과는 분리된, 노동자계급의 위 에 서 있 는 한줌의(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추대함으로써 노동자 국가의 변질과 함께 당 을 변질시켰다. 그리고 레닌의 제기 가운데 「중앙 집권」 「철의 규율」 이라는 말만을 도려내어, 그것을 내실이 없고 메마른 교조로 내세움으로써, 「스탈린주의 의 당」에 노동자 인민의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한 반발에서 오늘날, 레닌의 당 조직론 자체를 부정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일종의 「유행 사상」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 멘세비키적 인 해당주의, 부패한 서클주의를 미화하고, 만연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 지 않고, 레닌과 볼셰비키 당의 투쟁의 그 진정한 모습을 고쳐 파악하고, 그들의 실 천적 격투에 좀 더 철저하게 배우고, 그 교훈을 21세기 혁명에 살려 나갈 것이야 말로 요구되고 있다.

혁공동은, 반 스탈린주의 혁명적 공산주의의 당으로서의 반세기를 넘는 격투를 지나, 결국 오늘날, 당과 노동조합의 일체적 건설론을,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의 조직론적 핵심으로 명확하게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지점은, 혁공동이, 스탈린 주의와 결별을 시작해서, 60년 안보 투쟁, 70 년 안보 · 오키나와투쟁을 거쳐, 그 후의 권력 · 반혁명에 의한 조직절멸공격과의 20년에 걸친 내전을 헤쳐 나와, 또 한 당을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당」으로서 세우기 위한 91년 5월 테제 이래 장 기간에 걸친 투쟁을 통해 「고난의 투쟁으로 쟁취한 지평」이다.

2009년에 발표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사업 이다」로 시작하 는 강령 초안은, 그 하나의 결실이다. 이에 압도적인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말로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를 향해, 혁공동과 함께 「세계 단일 노동자당」 을 건설하고, 프롤레타리아 세계 혁명의 승리를 향해 전진할 것을 호소하자.